

최우수 방화성능을 가진 선박용 벽체판넬의 리더기업

정의수 | 협회 홍보팀장

현대중공업, 대우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국내 완성조선은 물론 해외의 히타치중공업, 미쓰비시중공업, 중국조선공사(CSBC) 등의 협력사 중에는 국내 선박용 선실기자재 시장에 '92년부터 제품을 공급해 1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세계 3대 선실기자재회사의 하나로 자리매김한 신성기술산업이 있다.

신성기술산업과 한국화재보험협회와의 인연은 먼저 화재보험법에 의한 특수건물 대상 공장으로 협회로부터 화재안전점검을 받아 왔다.

두 번째는 협회 부설 방재시험연구원과의 인연으로 연구원이 미국국적 선박용 물품의 형식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해안경비대(USCG, United States Coast Guard)를 대신하여 성능시험과 제조업체에 대한 품질관리시스템 사후 관리업무를 대신하고 있어 미국 국적선에 대한 수출촉진을 위해 협력관계를 맺게 되었다. 부산의 녹산공단에 자리잡고 브랜드 "STACO"를 개발하여 세계시장 공략에 나선 신성기술산업의 모습과 향후 전망 등을 소개한다.

얼마 전에 '타이타닉'이란 영화가 상영되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케이크 윈슬렛이 뱃전에 올라 두 팔을 펼쳐 바람을 가르던 장면이 젊은 연인들

의 우상이 되었던 이 영화 속의 아름다운 선실과 화려한 무도회가 열렸던 후로어는 선상 궁전이기도 하였다. 신성기술산업은 한 마디로 호화여객선 타이타닉과 같이 배의 내부를 인테리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회사이다. 거기에 하나를 더해서 방화와 차음성능을 완벽하게 실현할 수 있는 기술도 보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망망대해(茫茫大海)에서 만날 수 있는 화재로부터 선원을 지켜주고, 선박과 화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일반선박, 해상구조물 및 초호화 여객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에 이르기까지 선실용 방화 벽판(Wall Panel), 선실용 방화 천장판(Ceiling Panel), 조립용 욕실(Prefabricated Bathroom Unit)을 생산하는 업체이다.



선박 실내공간 연출 전문기업을 목표로...

1974년에 설립된 신성기술산업은 선박 인테리어의 설계, 제작, 현장시공 및 해외 에이전트를 통한 유지보수까지 풍부한 노하우를 자산으로 선박공간의 실용성과 심미성이 어우러진 선박 실내공간연출 전문기업을 목표로 끊임없는 도전을 하고 있다. 또한 선박의 대형화는 대부분 폐쇄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설계 시 시공자재의 선정이 곧 소중한 인명을 구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방화성능이 극대화된 제품의 사용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을 연출하는 데에도 중점적인 노력을 기울인다고 하니 우리 협회의 설립취지에도 꼭 들어맞아 반갑기 그지없다.



지속적인 품질개선 추진, 1000만불 수출탑 수상 신의, 성실이라는 사훈을 가진 신성기술산업은 생산활동에 있어서 3S (Standardization-표준화, Specialization-전문화, Simplification-단순화)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생산기술을 연구·개발하여 지속적인 품질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전사적 품질경영활동을 전개해 제품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관리기반을 내부의 역량으로 구축하고 있으며, '93년 국제 표준규격인 ISO9001, CE MARK 인증 획득, 2003년 산업자원부 선정 세

계일류상품으로 선정되었으며, 노사의 단합된 힘으로 수출을 꾸준히 늘려 지난 2001년에는 산업자원부장관상인 1000만불 수출탑을 수상하여 170여 명의 노사가 기쁨을 함께 했다.



방화·차음성능이 뛰어난 인정받는 제품

'99년 120억원에 불과했던 매출을 2000년 150억원, 2001년 200억원, 2002년 250억원 등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

특히 생산제품의 50%는 미국, 일본,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에 해외영업망을 확보했고 꾸준히 시장을 확대한 결과, 현재 월 100만 달러 이상, 연간 1,000만 달러의 수출실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2003년에는 30%의 수출증대가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성기술산업은 최근 방재시험연구원과의 업무 협조를 통해 까다롭기로 소문난 미국 해안경비대(USCG)의 형식승인을 비롯해 일본, 독일 등에서 공인테스트를 거쳐 200여 건의 해외표준 인증서를 획득하여 명실공히 세계 일류상품으로 인정받는 쾌거를 이룩함으로써 우리나라 조선기자재산업의 국가 이미지를 향상시켜 경제외교에도 한 몫을 담당해 왔다.

▶ 탐방 | 신성기술산업(주)

지난 1999년 이탈리아의 선실기자재업체 B&B Italia와 합작으로 조인트벤처 설립을 통해 선실기술의 도입과 기술제휴를 통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크루즈나 개인요트 사업부문의 특징에 맞는 고부가가치성 특수기능성 기자재의 사업 쪽으로 확장하고 있다. 또한 신기술 개발을 위한 부단한 연구와 개발을 통해 국내 선실내장재의 모듈화, 유니트화를 주도한다는 목표 아래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투자를 하고 있다. 아울러 세계 최고의 방화, 차음성능의 제품 생산을 위해 원자재의 국산대체 및 품질개선을 위한 전문 인력을 자체 육성하고 개발투자를 매출액 대비 5%이상으로 점차 확대해 갈 방침이라고 한다.

이동형 사장은 “타사 제품과 비교해서 품질과 성능이 뒤떨어지는 제품은 해외에서 경쟁력이 없습니다. 생산업체가 회사의 제품에 자신이 없으면 안되지요. 저희 제품이 가격이 높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방화, 차음성능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 자부합니다. 향후 소비자의 인식개혁을 통해 무조건 값싼 제품만 선호할 것이 아니라 품질과 성능이 뛰어난 제품이 인정받는 풍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언급했다. 선박기자재 방화·차음판넬의 제조기술이 육상에도 적용되어 지하철 역사용 판넬도 개발하였다는 설명을 듣고 나니 대구지하철 화재참사가 떠올랐다. 고도의 안전을 위한 제품이 널리 보급되어 ‘지하철=안전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다.

쾌적한 안전환경 분위기 조성

최근 2~3년 동안 최신 생산설비 도입과 주력제품의 품질제고 및 원가절감은 물론 생산현장의 쾌적한 안전환경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본 공장 바로 옆에 약 5,900㎡ 신공장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생산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복지 향상 및 근로환경 개선에도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회사 방화안전대책도 새로이 강구하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모든 것이 변화하고 있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음을 목격할 수 있다.



자체 연구소 강화 및 장기프로젝트 추진

선박소재산업의 부가가치 극대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하반기에는 자체 연구소를 강화, R&D인력을 보강하고 시장개발을 위한 투자는 특수선용 고방화 차음 판넬, 뜬바다구조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2000년부터 시작된 장기 프로젝트에는 1단계에서 제조설비 증강, 2단계에서 호화여객선 및 특수선용 제품의 연구개발 투자, 3단계에서는 원자재의 국산화 비율 확대 생산을 계획, 추진하고 있다.

선박기자재 최우수업체로서의 자부심과 전사적 품질경영활동으로 소비자의 만족을 추구하고, 신공장 증설과 설비도입에 따른 생산능력의 강화, 고기능 재료에 대한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신성기술산업의 노력은 머지않아 세계에서 인정받아 우뚝 설 것으로 확신한다. ☺

【도움을 주신 분 : 차선일 과장】